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교통대책, 개발사업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” - 26일 수도권 동남권(용인시, 광주시)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26일(금) 오후 3시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용인시 및 광주시 교통관계자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,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애로사항을 듣고,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“수도권 동남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”를 개최하였다.
-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, “용인시 및 광주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기준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, 광역교통 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”면서,
 - “이로 인해 극심한 도로 혼잡, 대중교통수단 부족 등 기존 주민 및 신규 입주민 모두가 광역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이후, 이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그간 추진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현황 및 지역별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, 용인시의 “광역교통 개선대책 적기 이행” 건의에 적극 공감하면서, “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발굴 및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청에 대해서는 “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입석 대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언급하였다.
-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 위원장은 최근 용인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, “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, 이를 중심으로 광역통행량의 급증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면서,
 - “교통 대책에 대한 용인시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5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